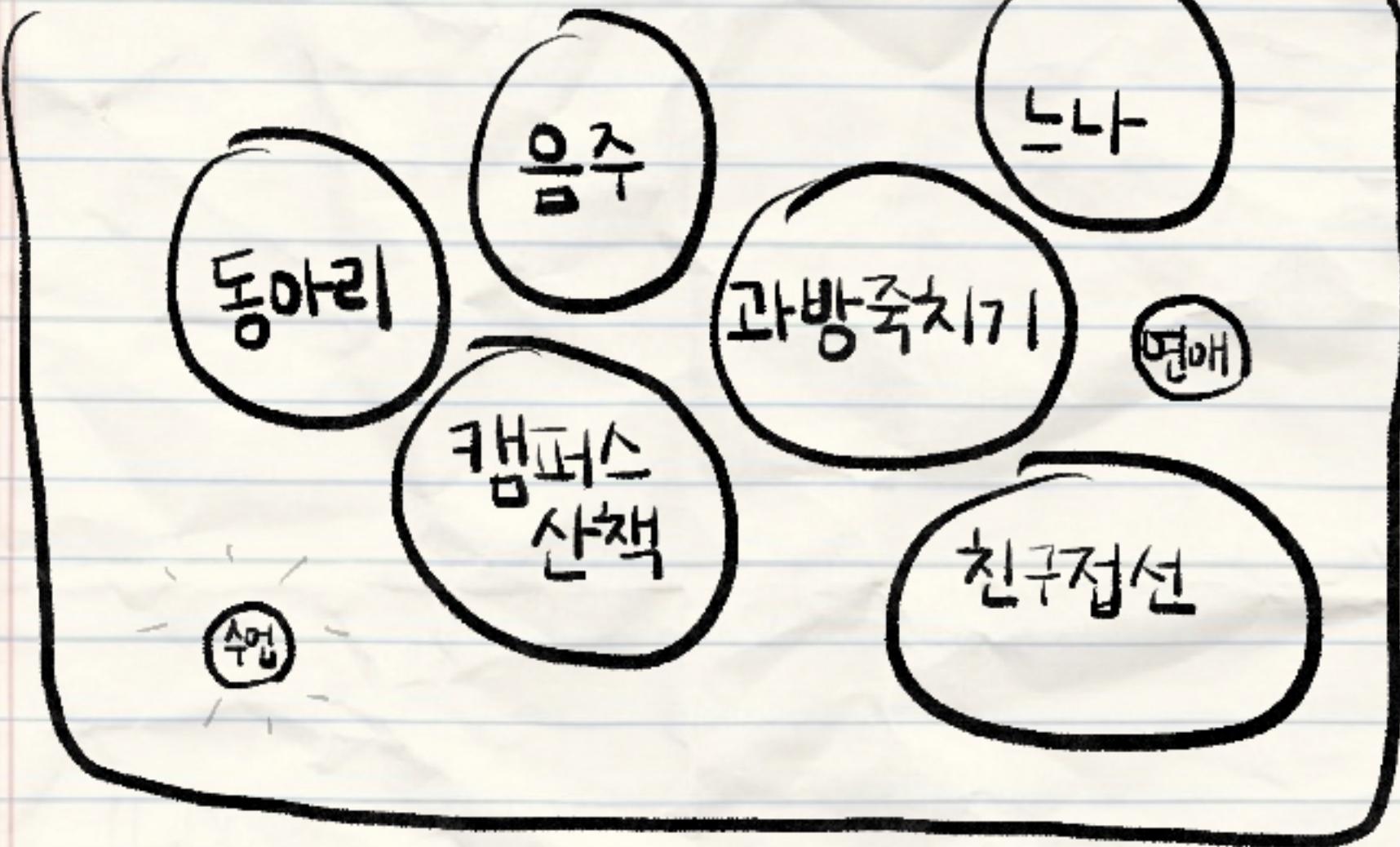


대학생활



처음 비대면 때 본가에서 투덜거리며

이 비대면의 문제에 대해 엄마한테 토로했다.

대학교는 단순히 수업을 듣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고... 어쩌구..

그니까 대충 수업 빼고 모든 게 좋아서 대학을 다니는 건데

비대면은 대학에서 노잼인 것의 압축, 고효율 노감성 느낌인거다.

DAY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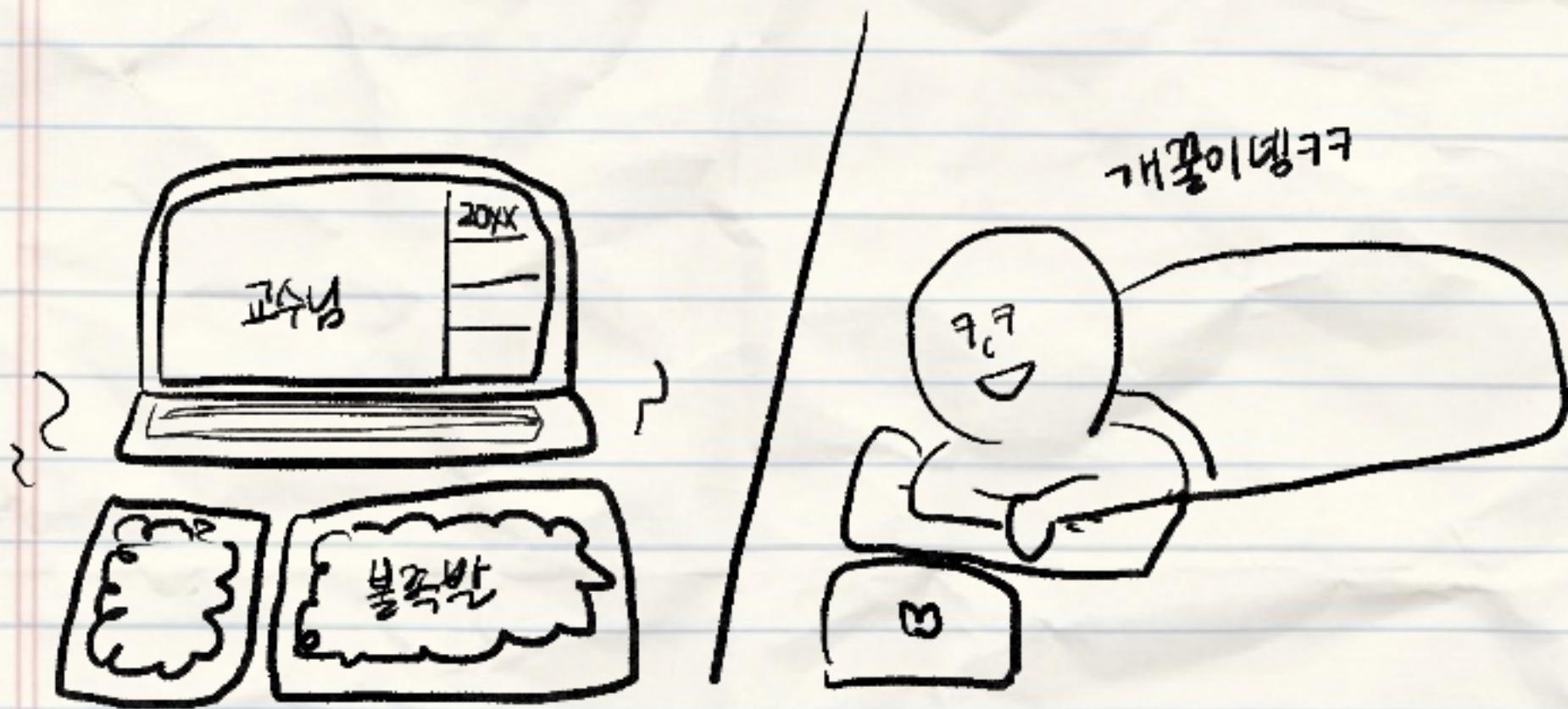


참 다양한 불만들을 꿍시렁거리게 되었었다.

“교육의 의미는 뭘까? 그럼 다 녹화강의하면 교수자는 무슨 필요인가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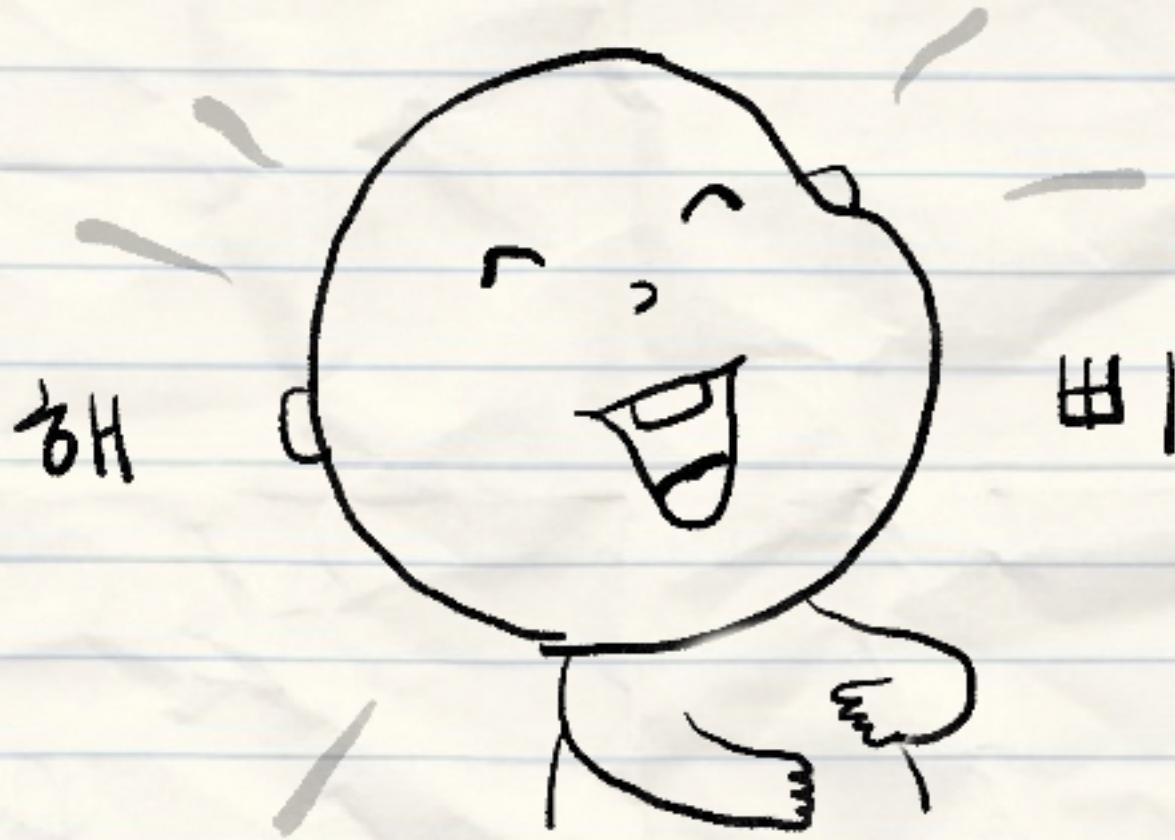
“미디어리터러시, 안정된 네트워크 환경을 전제하다니 폭력적이다”

“나는 그렇다쳐도 새내기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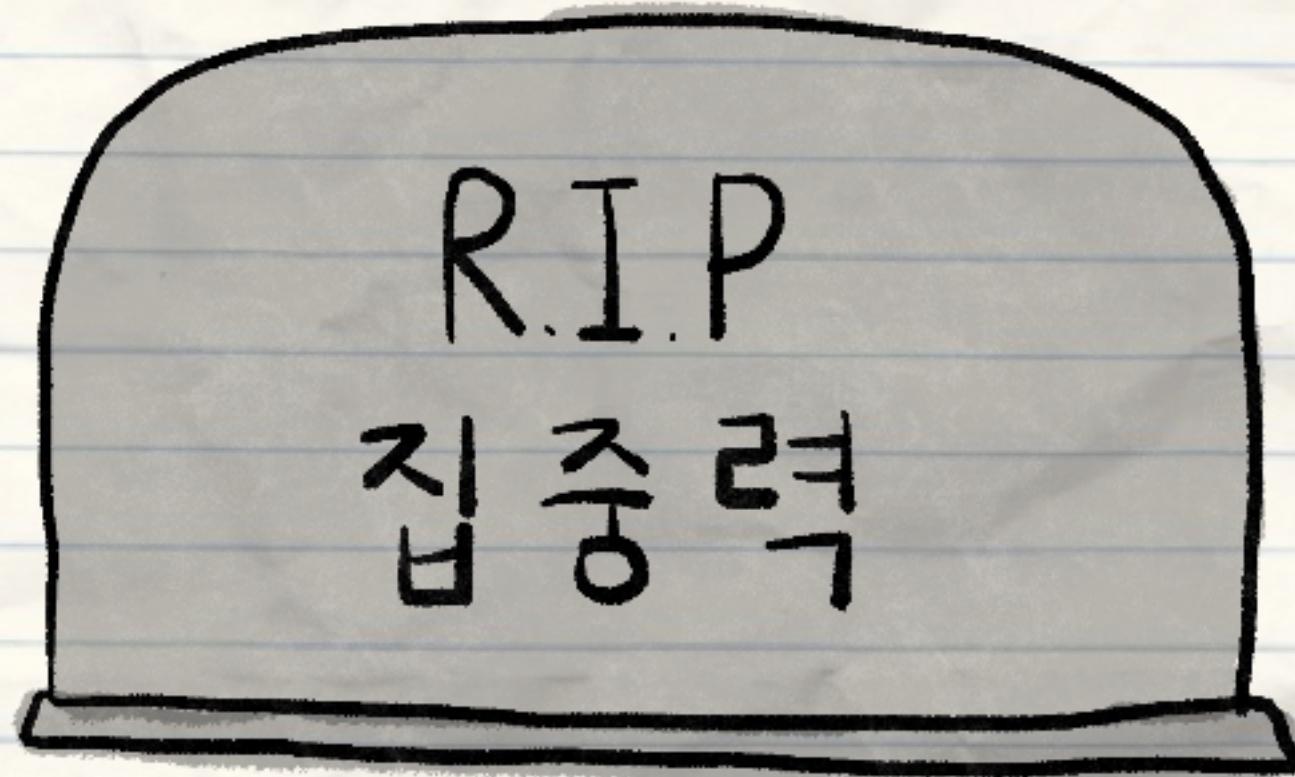
본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애 불족발을 먹으며 강의를
듣는다거나 (캠은 중반부터 스스로.. 아무도 모르게 끄기..)
누워서 듣기, 스밍으로 출석하기 등... 불량배의 수업태도를 가지고
살았다. 하하.. 이런 걸 그려도 되는 걸까..? 하지만 내 인생인 걸

A FEW WEEKS LATER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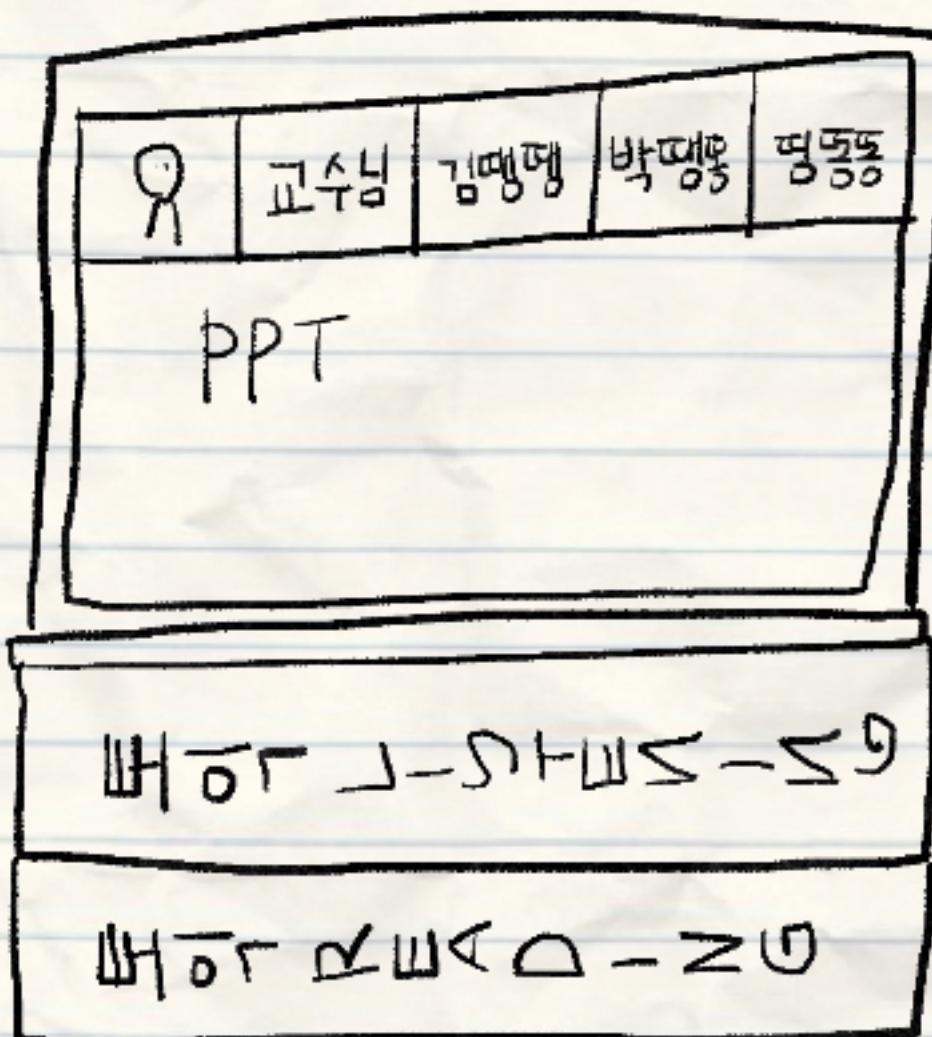


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었다.

비대면 상황의 리빙포인트들을 찾아내어
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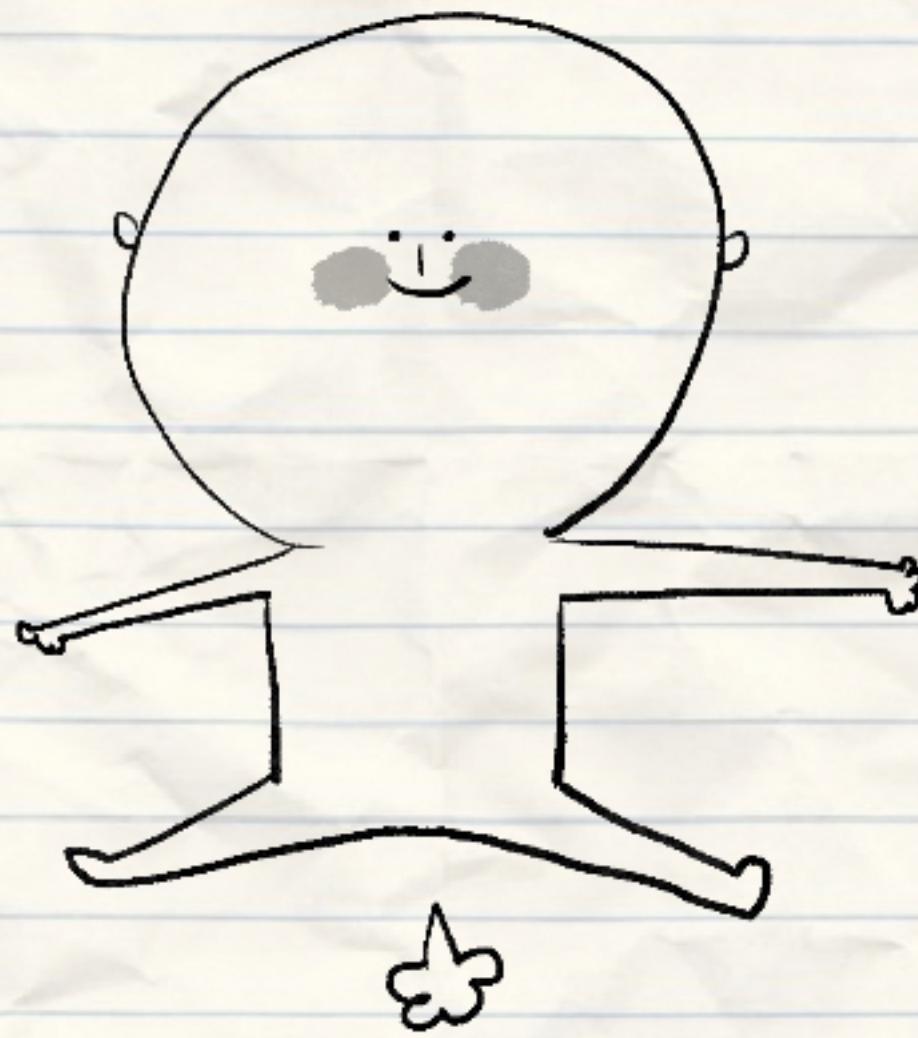


근데 비대면이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...
출석에 의의를 두고 수업시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
폰, 카톡, 수면보충, 동아리 활동, 숙취해소 등을 할 수 있었던
대면 world 와 격이 다른 땐짓 가능성이 열려버린 것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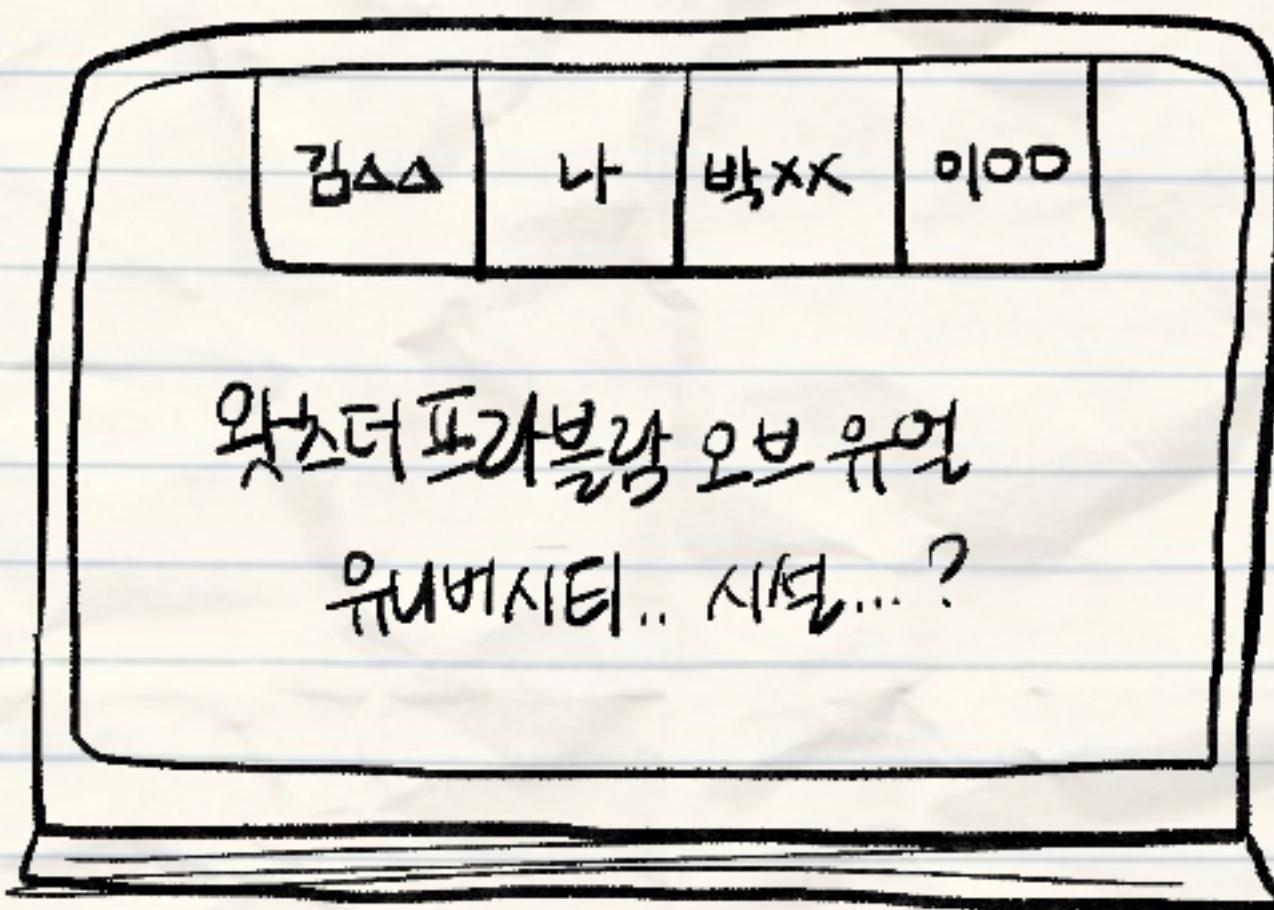


특히 죽과이를.. 비대면 녹강으로 듣는 게 화가 났다.
내가 할 수 있는 수업 준비.. 멋부리기는 노트북 각도조절을
위해 토익책 깔기와 가상배경 고르기, 틴트바르기(기-
전부... 이렇게 설렘 없는 가성비 좋은 대학생 활이
나의 막학기란 게 슬펐다. (근데 아직 졸업 못함 ㅋㅋㅋ)

나는 수업에 최선을 다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…



독학파 / 레포트 싫어함 / 팀플거치 / 시험좋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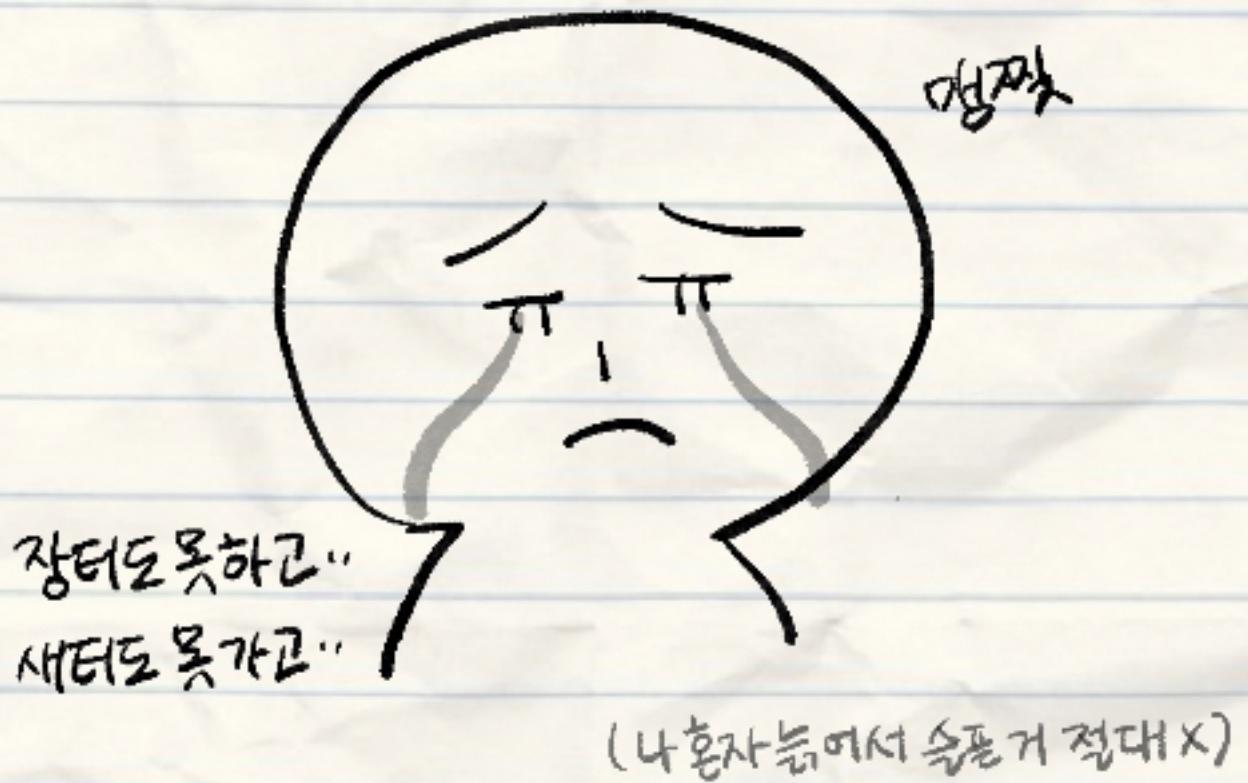
그리구 새내기하니까 생각난 일이 하나 있다.

성실한 오학년으로서 졸업필수 요건인 대영 2를 듣는데
학내시설물의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해 소그룹 토론을 했다.

English로 하는 게 미덕이지만... 사이버 소회의실의 소리는
교수님 귀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 진행을 했다. ㅎ



“다들 뭐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셔여?”라고
고학번의 짬바를 이용해 물흐르듯 진행하였는데
면접 이후로 학교를 못 가봐서.. 시설 문제점을
얘기하지 못하신다는 것이다...



(나 혼자 늙어서 솔풀기 절대X)

학교를 가지 못했다는 게 내가 너무 한스러워서
마음 아파 하며 땀소리로 팀 회의를 마무리했다..
친구들.. 영어 잘 하던데.. 죄교환 갈 수 있는 날이 오길..
학교 시설물의 문제점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..